



▷ 김민기

해외고승 법문집 국내소개 잇따라

탁약한·성운스님등 생활법문 '인기'

다른 나라 고승들의 법문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지구촌시대를 맞은 요즘 이같은 궁금증을 직접 확인시켜 줄 해외고승들의 법문집이 잇따라 소개되고 있어 다양한 나라의 살아있는 불교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 말 베트남

고승 탁약한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고승 티벳스님의 <깨달음의 여정> (장경각)과 미얀마

교에 대한 그릇된 선입관을 불식시켜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란 기대를 호종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현재까지 소개된 책은 모두 17여종에 이른다.

가장 많은 책이 번역된 스님은 단연 티벳승당 달라이 라마

수행 첫단계부터 상세히 설명 티벳·남방불교 재인식 계기

의 저서와 법문집이다. 장승의 <당신의 적이 당신의 스승입니다>와 새터의 <해바리의 달라이 라마> 등이다.

티벳스님과 성운스님의 법문집도 많이 번역됐다. 티벳스님의 <공화포옹> (소설부터 상·하) (살에서 깨어나기·장경각) 등이 장경각에서 나왔고, 성운스님의 <보통 중생도 통 부처> (보림사) (마음의 비밀 1, 2) (보림사)가 소개돼 불자들에게 많이 읽혔다.

나라별로는 남방불교에 속하는 미얀마 스리랑카 베트남 고승들의 법문이 다양하게 소개됐다. 스리랑카 라올라스님의

<나라고 할만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와 마하테라스님의 <오직 그대 자신을 통째로 삼아라>는 경서에서 출간됐다.

이밖에도 지난 1959년 120세의 나이에 입적한 중국의 고승 허운스님의 전기집 <10년(1987)기(奇)> (보림사)와 영국 아간 수메도스님의 <물소를 닮은 마음> (고요한 소리) 등이 출간됐다.

라올라스님의 법문을 번역한 이승훈씨는 해외고승 법문의 국내소개와 관련 '너무 오랫동안 한국의 불자들은 부처님을 잊고서 조사(禪師)들에 매여 있었다. 조사의 말이 아니라 금구(金口)가 아님은 아니지만, 부처님의 수행진동이 살아 있는 남방불교의 우수한 점을 받아들이라'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 세계의 책

▷ 불교논리학 1·2 임옥근 옮김

6~7세기에 활약한 디그나가(提婆)와 다르마키르티(法稱)를 중심으로 인도 디그나가 학파의 대승불교 논리학을 다룬 본격적인 불교논리학자가 나왔다.

지금까지 출간된 불교논리학 관련 서적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으로 평가되는 이 책은 불교논리학자들이 쓴 인

도·티벳 원전토대 '불교 논리학' 정리

들이 대부분 종교적 측면을 다루고, 전체적인 불교철학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인 불교논리체계를 간과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이 책은 역사·철학자는 물론 산스크리트 언어학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서원 각권 1만5천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기도 일 타 효 립

2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3 그 마음을 밝혀라 김 재 응 용 화

4 만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영·배용 고려미디어

5 영인한 자유의 길 성 철 장 경 각

6 금강경 강의 범 룡 정 도

7 도가본시 읽는 내 마음 김 동 지

8 등산론 용 산 문학수첩

9 들부처 이 근 후 여시아문

10 능엄경주해 윤 후 동국역경원

구입문의: (02)737-0695

묘주스님 '성유식론' 최초 번역

동국대 강사인 묘주스님이 <성유식론(成唯識論)>을 최초로 번역했다.

<성유식론> 10권은 인도 유식학을 정립한 세친(世親)의 <유식삼십론(唯識三十頌)>에 대한 호법(護法) 등 10대 논자들이 각자의 주석서를 현종이 659년에 번역할 때 호법의 학설을 중심으로 합유(合論)한 본서다. 동국역경원이 한글대장경 제193권 <성유식론(外)>



▷ 묘주스님

로 간행했다. 묘주스님은 원종의 <해심밀경소> 하권과 무착의 <집대승론>, 세친·무성의 <집대승론> 10권도 번역하고 있다.

역경원 후원 '보은회' 발족

동국대역경원(원장 원종)의 후원단체인 보은회(회장 안청정행)가 지난 1일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불선사에서 발족했다.

보은회는 지난해 말 발족한 독학회에 이은 두번째 후원단체로서 각 사찰소속 불자 20여명이 모여 창립했다.

매달 회원 1인당 1만원씩의 후원금을 지원하고 후원회원도 계속 모집한다.

(0346)68-1950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유네스코는 최근 세계인의 독서열을 높이기 위해 4월23일을 '세계 책의 날(World Book and Copyright Day)'로 정했다.

영상매체에 밀려 갈수록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책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책의 날에는 세계 각 도시에서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벌어지게 된다.

이광수 '금강산유기' 재발간

30대에 들어선 춘원 이광수의 민족 계몽의 열정과 그 후 일제강점기의 방황을 엿볼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금강산유기(金剛山遊記)> (알선책)은 1921년과 22년 여름, 두차례 금강산에 올랐던 춘원의 여행기를 묶은 책이다.

'임석재 민속동요' 출간

구전민요와 설화발굴에 평생 바쳐 온 원로민속학자 임석재(83)이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관습과 풍습을 되살려 주기 위해 50여년간 쓴 민속동요 300여편을 모아 창작집 <임석재 민속동요> (전 4권·고려원미디어)를 냈다.

민속 동요집은 점차 사라져 가는 19세기말 20세기초의 한국문화와 한국인의 정서를 동시에 담아 교과서처럼 깔끔하게 정리해 어른들에게 애절한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옛 풍습을 노래로 보여준다.

명사추천
불서 100선

'신라·서역 교류사'

<신라·서역 교류사>(단국대출판부)는 단국대 사학과 조영교교수인 레바논 출신 무함마드 간수 교수의 역작 중의 하나로서, 신라와 서역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학문적인 정립을 시도한 근래 보기드문 노작(力作)이다.

이 책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신라불교의 남래설(南來說)을 주장, 북래설(北來說)의 시원론이나 유일론을 편견으로 보고 부인한 점이다.

남래설 주장의 근거는 '금강산유점사적기', '유점사적기' 등 유일론의 관음신앙, 가야국의 건축술 등에서 보이는 수로왕비 허황옥의 출신과 행적을 들어 신라불교는 남해로를 통하여 한반도의 동남해안안지방에 직수입되었다는 것이다. 즉 신라의 불교는 고구려에 전래된 기존 공전(公傳)의 북래설보다 200~300년 앞선다는 것이다.

간수교수는 앞의 증거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들 유물 유적의 대다수는 삼국통일기의 작품이 대다수이며, 이들 작품도 소수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 종래의 북래설 역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요컨대 저자의 남래설은 일단 경청해 볼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겠다.

고대 삼국불교의 전래는 육로로 해로를 통해 각기 다른 시기에 전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고, 관

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설(兩說)의 해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불교관계 유적 유물과 문헌을 광범하게 찾아내어 새로운 실마리부터 찾아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밖에 해초의 서역행적에서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그 페르시아와 대식국까지 여행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또한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에 대해 등장한 배경, 출신, 성장배경 등을 밝히고 서역원정의 동인(動因)과 탈라스전의 문화적 업적을 새롭게 정리한 점도 부각된다.

종래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사연구가 단편적 연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이 책은 양 지역 교류사에 관한 논지, 지도, 원전 등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장래 이 분야 연구의 지침서가 될 여

망이 충분하다고 기대된다.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양국 불교 유물·문헌 등 비교 신라불교 남래설 근거 제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다고

사건하면서 불교전래에 있어 종래의 경우 공전에 앞선 초

진유포(初進流布) 사실을 간과했다는 점과 북래(北來)의 유일설에만 집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저

자는 기원 전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서 해상교통의 상황을 조망해 볼 때 불교가 남해도를 통해 한반도의 동남해안안지방에 직수입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기존 북래설에 따른 신라 불교의 유적 유물의 분포사항을 보면, 신라와 고구려의 교통로로 간주되는 죽령로와 조령로를 거쳐 경주에 이르는 주변지역(충주, 봉화, 영주, 아동, 문경, 선산 등)에 산재된 불교유적과 유물이 집중적으로 산재(散在)된다.

고구려 불상 양식과 상통하는 불상도 발견됨을 고려하면, 신라 불교의 북래설을 뒷받침하는 가능성을 높이고

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양설(兩說)의 해결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불교관계 유적 유물과 문헌을 광범하게 찾아내어 새로운 실마리부터 찾아 재검토해야 할 문제라 하겠다. 이밖에 해초의 서역행적에서 종래의 견해와는 달리 그 페르시아와 대식국까지 여행했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또한 고구려 유민인 고선지에 대해 등장한 배경, 출신, 성장배경 등을 밝히고 서역원정의 동인(動因)과 탈라스전의 문화적 업적을 새롭게 정리한 점도 부각된다.

종래 신라와 서역간의 교류사연구가 단편적 연구에 불과한 상황에서 나온 이 책은 양 지역 교류사에 관한 논지, 지도, 원전 등을 광범하게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함으로써 장래 이 분야 연구의 지침서가 될 여

망이 충분하다고 기대된다.

최근영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실장)

사랑도, 혁명도, 역사도 다 업(業)이어라

죄없고 밋없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업을 안고 산다.



소설
업보

“이 땅의 승려로서 80년 5월의 항쟁은 나의 풀리지 않는 화두였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업장. 그 인과에 의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전국 서점가 베스트셀러 예고

헤범스님 장편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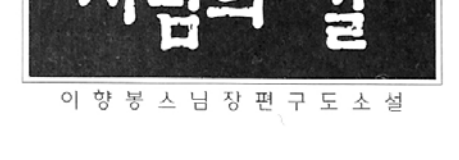
산중 암자로 떠나 버린 스님이 독 닦고 간 소설! 그렇다. 운명이 아닌 적극적인 실천의 삶. 불교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한 작품이다. -리현석(문학평론가)-

헤범스님의 소설 업보의 주인공 불승대 깨어고 깃털인 이 땅의 불승들을 위해 우리는 계속 민화할 것이다. -이종학(변호사)-

사람의 길은 진실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길입니다.

움직이는 모든 것은 아름답다

신바람 나게 살아라! 내용 뜻, 체면치레 뜻!



사람은 누구나 착하다. 사람이 악하게 보이는 것은 미움의 눈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열려 있다. 진리 또한 열려 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대도 말고, 맞도 말며 넉넉하고 여유있게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 인본적인 인생, 생명은 오직 하나. 연승용으로 소모할 수는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다.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황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예고

인도성지의 길에서 사람의 길을 찾아 황봉 스님이 던지는 인생의 화두!

전국 서점 베스트셀러 예고